

#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위한 평가 리포트

## 기사 정보

기사 제목: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, '계엄 정국'에 일괄 석방 우려

언론사: 한국일보

기자: 최동순

발행일자: 2025년 2월 4일

기사 종류: 해설 기사

주제 요약: 외국인 보호소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, 입법이 지연되면서 강력 범죄 전과자 등이 보호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한 기사입니다.

## 뉴스 비판적으로 읽기

뉴스를 읽을 때는 "무엇이 문제인가요?", "왜 문제인가요?", "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"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.

## 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

### 문제점 1: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

기사 인용:

"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..."

무엇이 문제인가요?

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. 실제 기사 내용의 핵심은 제도 개정 지연인데, 제목은 범죄자를 강조하며 무서운 인상을 줍니다.

왜 문제가 되나요?

사람들이 기사를 클릭하게 만들기 위한 '낚시성 제목'일 수 있으며, 외국인 전체를 범죄자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
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

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비교해보세요. 내용보다 더 자극적으로 제목이 꾸며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.

### 문제점 2: 반론이나 다양한 입장이 부족해요

기사 인용:

"정부는 '고의로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 상당수가...'라고 주장했다."

"야당은 그러나... 주장한다."

무엇이 문제인가요?

정부나 여당의 주장은 여러 문단에 걸쳐 설명했지만, 야당이나 인권단체 등 반대 입장은 짧게만 언급돼요. 외국인 당사자의 말도 없어요.

왜 문제가 되나요?

뉴스는 다양한 사람의 말을 공평하게 실어야 해요. 한쪽 말만 들으면 판단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.

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

기사 안에 몇 명의 주장만 반복되고, 반대 입장이 짧게 지나가면 균형이 부족한 기사일 수 있어요.

## 문제점 3: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요

기사 인용:

| “중국 국적 장모씨는 둔기로 배우자를 살해하고...”

무엇이 문제인가요?

기사에 실명에 가까운 표현(“장모씨”)과 범죄 내용이 너무 자세히 나와요.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위험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.

왜 문제가 되나요?

범죄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면, 사람에 대한 낙인을 만들 수 있어요.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생길 수 있죠.

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

이름·국적·범죄 경력이 강조된 부분이 반복되면 인권 침해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.

---

## 비판적으로 뉴스 읽는 방법

제목만 보지 말고, 본문 전체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.

누구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, 반대 의견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세요.

사람을 범죄자처럼 단정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.

---

## 실습 활동 제안

“자극적인 제목”과 “사실에 충실한 제목”을 비교해 보는 활동

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언론사의 기사와 비교해 보는 활동

뉴스 안에 ‘다양한 사람의 목소리’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활동

---

## 추가 학습 자료

[인권보도준칙](#)

[좋은 뉴스의 기준을 배우는 수업](#)

---

## 결론

뉴스를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, “왜 이렇게 썼지?”, “이건 공정할까?” 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,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

필요하시면 위 리포트를 Markdown 또는 PDF 형식으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다음 단계로 요약 정리 또는 후속 기사 감수 분석을 원하시면 알려주세요.